

2024 KYS 미술품가격지수

자료제공_ (사)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

<2024 작가별 낙찰총액 상위 3위 KYS 미술품 가격지수>

낙찰총액	작가명	낙찰총액(원)	출품수	낙찰수	낙찰률(%)	호당가격	호당가격
1 위	김환기	7,324,800,000	50	32	64.00	35,812,500	1 위
2 위	이우환	5,744,580,000	233	120	51.72	26,883,730	2 위
3 위	이배	5,481,490,000	135	96	71.11	2,188,077	5 위

국내 작가 중 낙찰총액 3순위 '김환기-이우환-이배'에 대한 'KYS미술품가격지수'를 비교해 보니, 캔버스 작품 기준 호당가격 순위는 '김환기-이우환-이배' 순이었다. 이 중에 **호당가격이 가장 높은 김환기의 가격지수를 '100'으로 기준**하면, **2위 이우환은 '75.07'**, **3위 이배는 '6.11'**로 나타났다. 결국 작품의 호당가격을 기준으로 한 KYS 지수는 전체 작가에선 여전히 김환기가 1위이고, 생존작가 중에는 이우환이 비등하게 2위를 차지했지만, 3순위부터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. 이는 **특정 작가 의존도의 쏠림현상이 지나친 상황**임을 보여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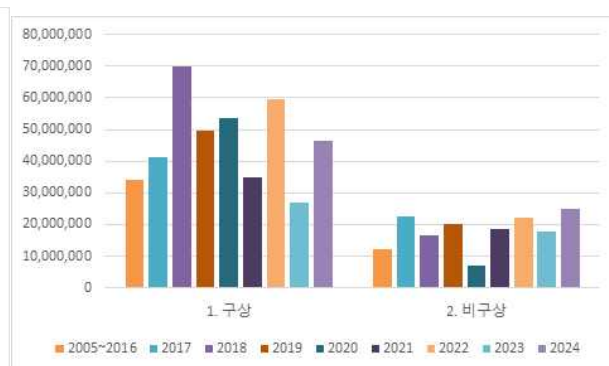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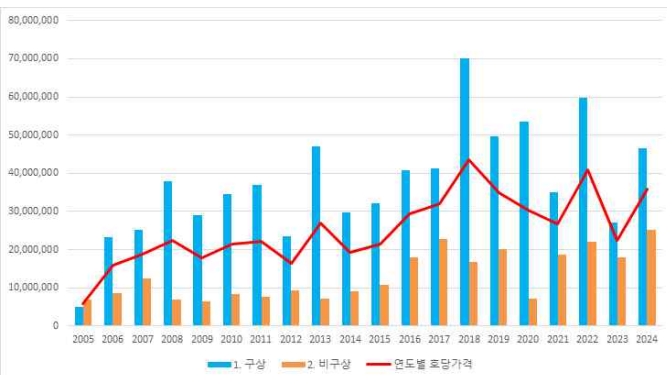
1위 김환기 작품은 크게 구상과 비구상 성격의 작품으로 시장 선호도가 달라지는데,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9년간 주제별 **평균 호당가격은 구상 약 3,740만 원과 비구상 약 1,310만 원**으로 여전히 구상 작품이 높았다. 단색화 열풍 이후 최근 작품들로 비교하면 구상과 비구상 호당가격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다.

2순위 이우환 작품의 시장 선호도는 시대순에 따른 표현 기법으로 달라지는데, '점→선→바람→조용(다이얼로그 포함)'에 따라 차이가 있다. 세부적으로는 '**점 시리즈 약 2,200만 원, 선 시리즈 약 1,900만 원, 바람 시리즈 약 780만 원, 조용(&다이얼로그) 시리즈 약 470만 원**' 선이다.

3순위 이배 작품도 시리즈에 따라 달라지는데, '**무제 시리즈 약 60만 원, 불로부터 시리즈 약 170만 원, 붓질 시리즈 약 230만 원**' 등으로 나타났으며, '붓질' 시리즈가 시장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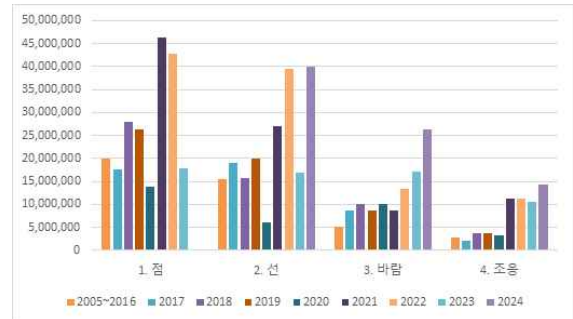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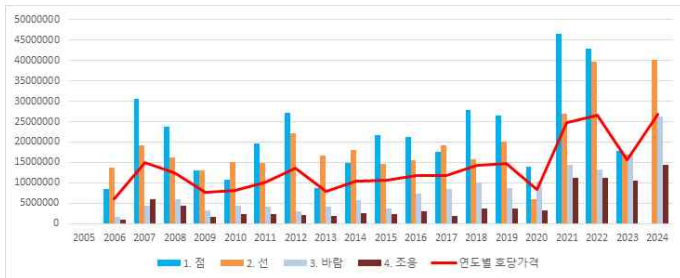
1위 김환기 / 2024 KYS 미술품가격지수(100) <김환기-호당가격 (2005~2024)>

주제(2005~2022)	주제구분 호당가격(2005~2024)
1. 구상	37,387,519
2. 비구상	13,102,491



2위 이우환 / 2024 KYS 미술품가격지수(75.07) <이우환-호당가격 (2005-2024)>

주제(2005~2022)	주제구분 호당가격(2005~2022)
1. 점	21,814,615
2. 선	19,150,259
3. 바람	7,800,844
4. 조응	4,729,140



3위 이배 / 2024 KYS 미술품가격지수(6.11) <이배-호당가격 (2005-2024)>

주제(2005~2022)	주제구분 호당가격(2005~2022)
1.무제	562,018
2.블로부터	1,655,268
3.붓질	2,251,622

